◆ Education of Library Science in Korea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

——1970년도의 회고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천 혜 봉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Ⅰ. 머릿말

비록 하찮은 글이기는 하나 갑작스럽게 요구를 받고서 저윽이 당황했다. 그것은 이번 한해에 국한되는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교육계에서 이렇다할 특기 사항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거니와, 또한 사실상 교육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으로 토막지어 회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기야 교육이란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계발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올바르게 그 반응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문제가 여러 기관지에 실리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서로 비슷한 느낌을 짙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한다. 여기서도 그러한 범주를 벗어 나기 어려움을 미리 전제하면서, 주로 오늘 날의 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올해에 있었던 주요문제를 회고하고 곁들여 의견을 부연해 볼까 한다.

Ⅱ. 개괄적인 고찰

어제 오늘에 듣는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교육에 관한 비판과 문제점은 비단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필자에게 두드러지게 느끼게 한 것은 독자적인 문화적 사회현상에의 적응성 결핍, 기술적인 체험의 미숙,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문헌적 배경(文獻的 背景)의 빈곤, 문헌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교육문제 등에 관한 비판과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이를테면 사서자격증을 수여하는 단기강습의 지양 등 따위를 더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도서관학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중요시 되는 위의 제문제를 분석 고찰해 보고 아울러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보려한다.

1. 독자적인 문화적 사회현상에서의 적응성문제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도서관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먼저 교육자 자신들이 마땅히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학의 이론과 실제가 들어 온 것은 10여년전의 일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식 유형의 것이었다. 그 당시의 교육계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익히게 해야 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날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대로 되풀이 할 수는 없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의 제도와 사정이 워낙 뒤떨어진 우리에게 그 차원이 높고 또 그 가운데는 이질적인 성격과 내용의 것도 적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 맞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도서관학교육에 아직도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지 않은가, 만일 남아 있다면 이를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사회현상에 적응되도록 개변할 것인가, 또 선진된 도서관학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우리의 고유한 부면을 독자적으로 개척시켜야 할 점은 없는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 검토한 다음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보탤 것은 보태며 창안할 것은 창안해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재구성 해야 될 것이다. 관리조직을 그 예로 들어 보자. 이것은 도서관업무의 전반을 텃취하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는 인사·조직·수서·정리·봉사 및 운영 등의 정책과 제문제가 집약되는 것인데, 우리가 초창기에 배웠던 순미국식의 교육내용이 경제 문화 사회의 제도와 수준이 낮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응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간 경험하였다. 이를테면 예산의 규모가 아주 적은 우리의 현실에서 예산의 규모가 방대한 도서관의 수서정책을 그대로 교육시켜 보았던들 그것은 한낮 이상론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 것은 뻔한 이치이다. 또한 그 수서정책으로 한국 고유의 자료를 평가해서 선택수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것을 도외시한 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도서관학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되는 문제점들이다.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선진된 원리와 방법론을 도입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응되도록 재구성하면서도 세월의 경과와 병행하는 도

서관의 발전에 따라 이상의 방향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피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중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도서관학교육을 위한 국가정책의 제정은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여러 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는 현실적인 요구와 종합적인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도서관학 교육정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국내의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밀접한 유대의 견지에서도 생각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독자적인 적응에의 경향은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도상국에서 고조되고 있으며, 그일례로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지일랜드 인도 및 남아프리카가 그들 자신의 제도를 수립하고 그들 자신의 필요에 적응시키고 있다」고 논평한 Palmer의 말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늘 날 우리는 서구의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토대로 그것을 비판하여 장점과 단점을 가려내고 이것을 우리 민족, 우리사회가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며, 또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여명기에 처해 있다.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우리 도서관학에도 해당되므로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론과 실제를 도입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적 사회현상에 적응되도록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술적인 체험의 미숙문제

학부 도서관학과 과정에서 4년간에는 도서관학교육을 받으면서도 기술학에 속하는 분류·목록도 제대로 못 한다는 평이 오늘 날의 화제인 것 같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료면의 조직에 있어서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이 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교육이란 우선 현실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미래의 차원 높은 단계로 지양케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경험시키는 것이 그 본연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4개대학의 도서관학과에서 현실적인 요구에 호응하기 위하여 분류·목록의 학점을 전공과목중 가장 많이 배당하고 있으며, 또한 졸업할 때까지 6~8주간의 실습을 겸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공과목 전체를 볼 때 이 이상 더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완성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전공분야에 대한 방법론과 적응에의 판단능력만을 터득하였을 뿐이며, 경험에 의한 참다운 지식과 기술은 졸업과 동시에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학문의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된다. 우리 기성인의 전문직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서 실무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의 체험에 대하여 별로 애로를 느끼지 않았을 뿐이다. 또 한편 자료조직에 있어서 기법이 중요하다지만 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일정한 기간 경험만하면 곧 숙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따라서 선학과 후학의 가름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 그 때부터는 오히려 누가 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문헌적 배경, 다시 말하여 어학의 토대위에 구축된 교양적 및 주제적인 지식이 풍부하냐에 따라 우열이 가름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수한 전문직이 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법보다는 문헌적 배경이 대전제가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한편 이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학이 도입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나 이제는 성장단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자료의 조직같은 것은 진작부터 국가정책으로 중앙에서 전담하여 전국에 보급시켜야 했을 것이며, 개개 도서관의 우수한 사서는 도서관의 궁극의 목표인 문헌봉사활동에 전력을 기우려야 했을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도 응당 현재의 자료조직 위주가 문헌봉사활동 위주로 개변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도서관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자료조직의 기법이 미숙하다는 평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방법론과 적응에의 판단능력만 갖고 있다면 몇해의 실무를 통하여 곧 숙달될 수 있으므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문헌봉사 중심으로 교육방침이 서서히 바꾸어져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3. 문헌적 배경의 빈곤문제

문헌적 배경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넓은 의미로 붙인 것으로서, 이에는 어학의 토대위에 구축된 교양적 및 주제적인 지식이 포괄된다. Butler는 말하기를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현재의 인간의식 가운데에 옮기는 사회적 장치 (Social apparatus)」라 전제하고 「도서관학은 이러한 사회적 장치의 근본적 현상인 사회에 축적된 경험을 도서라는 매개체에 의하여 개인에게 전달하는 이론적인 면을 포함한 것이라」하였다. 여기서 인류의 기억 또는 사회에 축적된 경험을 개개인의 의식 가운데에 옮겨주거나 전달하여 주는 참으로 지대한 과업을 바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문직은 세계적인 고금의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평가 축적 조직 전달하고

재생과정을 거쳐 다음의 차원으로 발전을 꾀하는 사명을 전담하고 있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단순한 실무에만 의존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Toney도「기술과목에 편중한 교육은 넓은 시야를 갖춘 범교양적인 사서를 육성해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Johnson은 말하기를「지식에는 2종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주제를 자신이 아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주제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찾아 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 하였다. 그 중 전자는 어떤 한 주제의 배경을 형성해주는 교육이며, 후자는 문헌에 관한 지식을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이것들은 바로 어학의 토대 위에 깊이 있고 무게 있게 형성되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것은 Williams도 언급하였듯이 결국「지식의 배경과 이해가 실무보다는 도서관학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 4학년과정의 도서관학교과정을 검토해 볼 때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4개 대학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교양과목 40학점 전공과목 80학점(이에는 한문 일본어 및 교양과목이 들어 있어 실제는 그 보다 훨씬 적다) 선택과목 40학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전공과목이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배당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한다면 전공과목을 40학점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 교양 어학 및 타주제의 부전공으로 배당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함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공과목에는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1·2학년은 철저하게 교양과 어학만을 교육시키고, 3·4학년에서는 전공과 부전공과목을 병행하여 전문지식 이외에 부전공에 의한 주제배경(subject background)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이와같이 전문직사서에게 주제배경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대학원의 수준에서 도서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에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다. 학부가 없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 현행 학계에도 저촉되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상급의 전문지식만을 육성해 낸다면 후진성을 탈피못한 사회제도에 있어서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제도에 있어서 사서직은 5~3급의 직계가 있는데 그것도 얼마전에 3급갑류는 행정직으로 바꾸어지고 을류가 고작으로 T.O도 얼마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4~5급이 차지하고 있다. 그 중 5급은 고등학교출신 그리고 4급은 대학출신에 해당되는 직계이다. 더욱 곤란한 것은 5급마저도 특채에 의한 정식이 되려면 최저한 1년 아니 어제 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3년간이나 임시직으로 봉사하여야 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판국에 선진국에 있어서와 같이 석사학위사서만을 육성배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건전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그러나 그들이 하급직위를 원치 않을 뿐 더러 전문직 그 자체를 아예 열등시 할 것이므로 결국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일대 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선진국의 제도만을 그대로 쫓으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우리자신을 알라고 권고하고 싶다.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서의 직제제도부터 개선하여야 한다. 즉 5급을 없애고 위로 2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직제의 정지작업부터 선행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전문직교육의 수준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현행의 교육제도인 전문학교과정, 학부과정, 대학원의 연구 및 석사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종전의 1년과정은 학사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원 연구과정의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과정은 사실상 미국에서 1년간 이수하는 석사과정과 그 자격이 대동소이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직제와 경제적인 여건으로 미루어 보면 또한 적합한 과정이라 하겠다.

4. 문헌정보학의 교육문제

오늘 날의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문헌정보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미국같은 곳에서는 도서관학교에 문헌정보에 관한 과정을 증설하여 기존하는 도서관학과 과정과 동시에 수업하거나 또는 도서관학교의 전과정을 재구성하여 문헌정보학과 종래의 도서관학을 융합조절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응대학의 대학원과정에 있어서는 일변도로 이 계통의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학부도서관학의 교과목에 도큐멘테이션이 들어 있으나, 이번에 신설된 대학원과정에는 문헌정보학으로 명칭을 바꾸어 여러과목 마련한 곳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기술과학계 산업계 및 정부에 의해 선구된 인포메이션 서비스 자체가 바로 도서관업무의 확장이며 심화발전이라고 인식한데서 고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과정에 있어서도 이문제는 일단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그 검토의 대상으로는 두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도서관자체에 있어서의 봉사의 능률화와 문헌정보의 검색을 위한 교육적인 면이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설비가 있는 기술과학계 산업계 및 정부의 특수기관으

로 진출하기 위한 교육적인 면이다. 그러나 전자(前者)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나라에 기계화된 도서관도 없거니와 우리의 실정으로서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장차 기계화되는 도서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소수의 도서관으로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자체를 위한 문제는 현시점에서 볼 때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헌정보에 관한 개념과 지식을 부여하는 정도의 개론 한 과목만 마련하면 되리라 믿어진다. 후자(後者)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몇몇군데에 전자계산기가 도입되었고 또한 도입중에 있다고 하며, 경영학과 기술과학의 분야에서는 교육도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분야의 진출을 꾀하려면 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는 기계와 이 계통을 전공한 교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학과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미 기계가 설비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다면 그 학과와 공동교육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도서관학과에는 이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최소한 1명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금년도의 도서관학계에 기쁜소식이며 수확이 있다면 정규대학원에 도서관학과 석사과정, 특수대학원에 사서교육전공의 석사 및 연구과정 그리고 전문학교에 도서관학과가 각각 신설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도서관학과 석사과정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신설되었다. 본시 대학원 도서관학과과정은 한국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미국인교수의 초빙으로 설치되었던 것이나 몇해동안 존속되다가 그들의 철수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설치된 과정만이 그 간 꾸준히 여자의 전문직을 육성해왔다. 한편 때를 같이하여 신설된 사서교육전공의 석사 및 연구과정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소속하고 있다. 이로써 도서관학교육을 위한 석사과정이 3개 대학에 마련되어 있으니 남녀를 막론하고 진학의 길이 열렸으며 전문직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은 물론 도서관학계를 위한 후진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지면관계로 금년에 신설된 두개의 과정에 한하여 교과과정과 그 개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대 대학원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전공과목	학점
도서관과 사회	2
자료조직법세미나	2
비교분류법연구	2
특수자료조직연습	2
고전자료조직연습	2
도서관사특강	2
독서지도론	2
인문과학서지세미나	2
사회과학서지세미나	2
자연·기술과학서지세미나	2
법률서지세미나	2
의학서지세미나	2
한국서지특강	2
중국서지특강	2
고문서학	2
공공도서관세미나	2
학교도서관세미나	2
전문도서관세미나	2
문헌정보 system분석론	3
문헌정보검색론	2
전자계산기개론	2
전자계산기실습	3

중 20학점(1·2기)

부전공

인문·사회·자연계 학과전공중 4 (3기)

합계 24학점

위의 교과과정을 대별하여 보면 「자료조직전공」「주제별서지전공」「동양서지전공」「관종별 도서관운영전공」「문헌정보학전공」의 5개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학년 1·2학기에 도합 20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과정표는 전공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임의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마련해 준 점이 그 특징이다. 2학년 1학기인 3기에 있어서는 자기의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타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부전공으로서 인문·사회·자연계 학과목중에서 4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타학계출신이 들어 오는 길을 터놓았으며, 그들은 위의 전공과목 이외에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법 참고업무 도서관운영론 및 동양서지 전공자는 서지학개론, 문헌정보학의 전공자는 문헌정보학개론을 각각 더 이수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전형방법은 전기대학원과정이므로 전공논문 영어 제 2외국어 및 면접으로 되어 있으나, 수업만은 직장에 있는 사서를 위하여 야간에 실시하고 있다.

연세대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교과과정

전공필수	학점
분류·목록의 특수문제	2
전적해제	2

도서 및 도서관사	2
주제별서지	2
도서관봉사의 특수문제	2
문헌정보학	2
	12학점 (3기)
공통필수	
도서관경영학	2
도서선택	2
분류 및 목록학	2
참고봉사	2
	6학점 (3기)
교직필수	
교직과목 15과목중	12 (3기)
	합계 30학점

위의 교과과정은 사서교사를 비롯한 교직자 또는 교직을 희망하는 이를 주된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직에 관한 교과목이 많이 들어 있음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서관학의 각 영역을 세분해서 깊이 전공하려는 이에게는 선택의 폭이 거의 없다. 그리고 타학계출신이 지망하는 경우는 위의 전공 및 공통필수과목 이외로 기본이 되는 도서관학과목을 4학점 더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교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석사과정은 정규대학원 과정과 같이 2년간 이수하고 논문을 쓰며 연구과정은 1년간의 이수로서 수료한다. 전형방법은 전공논문 전공에 관한 영어 및 면접으로 되어 있고, 수업은 전적으로 야간에 실시하고 있다.

전문학교의 신설된 도서관학과는 부산여자실업고등학교에 소속하고 있다. 이 전문학교는 초급대학과 동격의 것으로서 준사서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며 특히 지방에 처음으로 설치된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지방도서관은 대체로 직계가 낮기 때문에 학부출신의 사서도 별로 희망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서는 부득이한 과도적인 교육과정이라 평할 수 있다. 입학의 대상자는 중학교졸업자이며 수업기간 5년이다. 도서관학교육은 1학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계속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고하여야 할 문제이다. 1~3학년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기초교육을 시키고 이를 밑바탕으로하여 4~5학년에서 도서관학을 교육시켜야 바람직한 것이 될것이다. 교육과정표는 시간의 촉박으로 부득이 소개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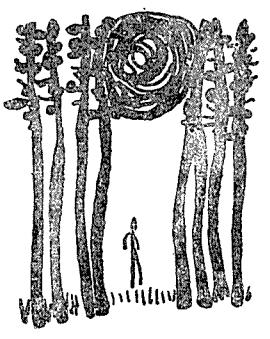
Ⅲ. 고조된 연구활동

발행년도는 1970년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년봄에 신간된 두개의 학술논문집이 있다. 아마도 1년내에 두책의 논문집이 우리 학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도서관학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진 이후 처음으로 거두는 대견한 수확일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도서관학계가 성장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두 책의 논문집 중 하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의 창립 10주년「기념논문집」으로서 도서관학 전반에 걸친 논문 8편이 수록되어있다. 다른 하나는 4개 도서관학과가 중심이되어 조직한 한국도서관학회에 의해 간행된「도서관학」제1집으로서 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 제2집을 마련하기 위한 두번째의 학술발표회가 지난 10월23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제목은 장일세 선생의「한국도서관을 위한 저자기호법의 연구」로서 제1집에 수록된 이재철 교수의 논문인「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와의 분석적 비교연구이었고, 이어 이병목 교수의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보고가 있었다. 회원의 참석이 많지는 않았으나 두 번째로 거두는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도서관학의 연구활동에 관련되어 말하고 싶은 것은 연구활동이 너무나도 진지하여 과열한 탓인지 글과 말의 표현에 있어서 지성적 윤리의 한계점을 넘는 감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들 서로가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인 사 소 식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장

(현) 조 일 문(趙一文)

(전) 김 석 순(金錫淳)
(同校 博物館長에 轉補)